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18일 23시 50분



## 목포시,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

2021.06.23 조회수 229

- 어패류 익혀먹기, 피부 상처시 오염된 바닷물 접촉 피하기 등 강조

목포시가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비브리오패혈증은 5~6월 발생하기 시작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8~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주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과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.

감염 시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.

특히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, 치사율이 50% 전후로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.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으로는 ▲어패류 완전히 익혀먹기 ▲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기 및 바닷물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▲생굴이나 어패류 취급시 장갑 착용하기 ▲어패류 5℃ 이하 저온 저장하기 및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 후 조리하기 ▲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하기 등이 있다.

시는 병의원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토록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건강증진과 김단비(270-3692)

2021.06.10. 질병관리청

### 비브리오패혈증

비브리오패혈증균  
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

**예방**  
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  
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 
바닷물에 접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**원인**  
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
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

**증상**  
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 
1/3은 저혈압이 동반,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 
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

**치료**  
병원진료(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),  
항생제 치료

8/9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2.목포시,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.jpg (185 hit/ 47.0 KB) ↓

미리보기

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